

◆ 북미

- AON, 2007년 항공보험시장 손실예상
- 부시 미 대통령, 테러보험법 연장안 승인
- 미국 채권보증보험사 ACA, 감독당국에 경영권 이관

◆ 유럽

- AXA, 러시아 보험회사 RESO 지분 12억 달러 매수
- 영국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2006 종목별 합산비율 발표
- Swiss Re, 건강관리와 글로벌 민영의료보험 산업에 대한 진단

◆ 일본

- 자배책보험 내년 4월부터 보험료 인하 계획
- 메이지야스다생명, 업계 처음으로 보험약관 전면 개정 단행
- 매뉴라이프 방카슈랑스 전용 투자형 연금보험 판매 예정

◆ 중국

- 중국재보험그룹 전략적 파트너 물색 중
- 중국, 수출신용보험 장려로 대외무역 촉진
- 2007년 중국농업보험 수입보험료 전년대비 5배 성장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AON, 2007년 항공보험시장 손실예상

- 미국 보험중개사 AON은 “2007년 항공보험(Airline Insurance)시장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아직 올해 사업의 85%만이 완료되었으나, 2007년 한해 항공보험의 총 보험료는 약 14억 6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총 보험금은 적어도 15억 3천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 항공보험시장은 대재해 보험시장(catastrophe market)으로 분류되지만 2007년에는 규모가 큰 단일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손실들로 인해 보험금이 상당히 증가함.
 - 지난 몇 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보험금 청구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항공보험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이었음.

- AON은 2007년의 손실로 인해 2008년 항공보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한해의 손실로 인해 보험인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으나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항공보험시장이 2009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AON의 항공우주부문 책임자인 Doug Peterson은 “항공보험시장의 번영은 끝났다”고 이야기함.
 - 그러나 항공 산업의 안전도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보험인수능력의 급격한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PR Newswire, 12/19)

□ 부시 미 대통령, 테러보험법 연장안 승인

-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보험법 만료시한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7년간 동 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테러보험법 연장안에 서명함.
 - 2007 테러보험 재승인법(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TRIPRA))로 불리는 이 법은 7년간의 테러보험법 연장과 함께 외국과 내국에서의 테러활동에 대한 구분을 삭제함.
 - 또한 이 법을 통해 미국 감사원(GAO,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은 테러보험의 보장 내용에 핵, 방사성 위험과 생화학위험 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 테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테러보험의 공급에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게 됨.
 - 또한 동 법은 초기 4년간 보험계약자에게 가중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테러보험법 상의 의무배상수준을 조정하게 됨.

- 손해보험관련 단체들은 이번 테러보험법 연장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인 Joseph Annotti는 이번 연장안이 테러보험 시장에 있어 전례없는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며 테러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정착 시킬 것이라고 반김.
 - 미국보험협회(the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회장인 Marc Racicot는 연장안의 통과로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장기 프로그램이 확립되었으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장기투자과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 리스크관리학회(RIMS ,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의 관계자는 테러보험 연장안의 통과가 올해 입법부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테러보험 재승인법이 테러보험 제공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Insurance Journal, 12/27)

□ 미국 채권보증보험사 **ACA**, 감독당국에 경영권 이관

- 지난주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채권보증보험사 ACA Financial Guaranty Corp.(이하 ACA)는 파산을 막기 위해 경영권을 감독당국에 맡기기로 합의함.
 - 따라서 ACA는 자산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먼저 메릴랜드 보험국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신용평가회사인 S&P는 ACA가 보증하는 690억 달러의 자산담보부증권(CDO)을 포함하는 750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ACA의 신용등급을 12단계 끌어내린 CCC등급으로 조정한 바 있음.
 - 감독당국은 ACA가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는 동안 채무불이행을 유예시켜 주기로 함.
 - 한편, 컨설팅 회사인 Celent의 한 애널리스트는 “ACA는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신속한 자본조달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함.

- ACA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9일 까지 S&P로부터 경쟁사들의 AAA보다는 낮은 신용등급인 A로 평가받았음.
 - ACA는 다른 회사들이 인수하기 꺼려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지자체의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음.
 - ACA는 2001년부터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0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채권보증보험사들의 모기지 증권 보증은 증가하였음.
 - ACA의 신용등급하락 여파로 캐나다 Imperial 상업은행은 지난주 ACA에 의해 보증되는 20억 달러 상당의 서브프라임 증권을 상각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신용평가 회사는 잠재적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에 MBIA, Ambac 등 다른 채권보증보험사의 신용등급도 재검토하고 있음.

(Bloomberg, 12/27)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AXA, 러시아 보험회사 RESO 지분 인수

- 유럽에서 2번째 규모의 보험회사 AXA는 러시아의 보험회사인 RESO-Garantia의 지분 중 36.7%를 매수했으며, 거래금액 규모로는 8억 1천만 유로(미화 1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AXA와 RESO는 합작사의 형태로 러시아의 신흥 생명보험 및 저축분야 시장개척에 집중할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AXA의 관계자는 거래가 내년 상반기내에 완료될 것이며 3년 내에 투자로 인한 수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음.
 - RESO사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러시아에서 2번째로 큰 보험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2007년 상반기 동 사는 4억 4천 6백만 유로의 수입 실적을 올렸으며, 당기순이익은 4천 1백만 유로를 실현하였음.
- AXA의 CEO인 앙리 드 까스뜨리는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AXA가 러시아 보험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며, 빠른 성장과 유리한 사업환경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지분 인수를 통해 AXA사의 성장 프로파일을 강화하고 신흥 보험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최근 많은 서부 유럽의 회사들이 러시아 오일 경제 붐에 참여하려고 하는 가운데 프랑스 2위의 은행인 Societe General은 지난 주에 러시아 Rosbank를 인수하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AXA도 2010년과 2011년에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통해 RESO사의 남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고 밝힘.

(Gulf Daily News , 12/23)

□ 영국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2006 종목별 합산비율 발표

- Datamonitor는 2006년 영국의 상위 10개 손해보험사의 사업비율과 손해율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해율의 개선으로 합산비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기타 종목들의 합산비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보험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해 및 건강보험 부문에서는 손해율의 상승으로 상위 10개사의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사 평균 손해율은 2005년에 비해 3.5%p 증가한 63.7%로 나타났으며, 사업비율은 0.4%p 하락한 29.9%를 기록하여 합산비율은 93.6%를 기록함.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프트마켓으로 인해 상위 10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전년대비 9.7%p 상승한 71.6%를 기록하였으나, Norwich Union 및 QBE사는 전년대비 각각 21.3%p, 8.8%p 하락한 43.6%, 44.9%를 기록하여 사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상위 10개사의 평균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12.9%p 상승한 102.1%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2006년 수익성의 개선이 이루어짐.
 - 상위 10개사 평균손해율은 3.3%p 하락한 71.1%로 나타났으며, 합산비율은 4%p 하락한 97.8%를 기록하였는데, AXA사의 경우 손해율이 지난해 보다 38.5%p나 하락하면서 72.3%의 합산비율을 기록해 동 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양호한 회사로 나타남.
- 금전손실보험의 경우 상위 10개사의 평균 사업비율이 1.8%p 상승함에 따라 합산비율은 1.6%p 상승한 94.8%를 기록하였으며, 재물보험은 사업비율의 상승(0.1%p)과 클레임의 증가로 2006년 합산비율은 전년대비 1.5%p 상승한 89.1%를 기록함.

(Datamonitor, 12/19)

□ Swiss Re, 건강관리와 글로벌 민영건강보험 산업에 대한 진단

- Swiss Re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에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4조 달러에 이르며, 소득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동 분야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건강관리 재무설계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연구결과는 Sigma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건강관리와 건강보험시장은 상위 산업인 의료기술이나 제약부문의 영향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 규제강도가 큰 산업인데다가 헬쓰시스템은 문화적, 경제적, 제도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글로벌회사들에게는 이러한 헬쓰시스템의 국가별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임.
 - 보험회사들은 각 국가마다 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인프라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지방마다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임.
 -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정보력 우위 문제나 환자들의 표준화된 진료 거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험금 지급관리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들은 이해당사자들 모두의 기대를 맞추기 어려운 환경임.
 - 따라서, 영업과 마케팅, 언더라이팅, 그리고 운영의 세가지 부문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험회사들은 규제와 시장 및 진료부문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상품설계, 언더라이팅, 경영부문에 반영하고 의료프로세스의 관리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함.
 - 보험회사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수요측면에서는 공제율, 공동부담, 합리적인 가격 등을 적절히 조합한 상품설계에 달려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함.
 - 향후 개방 및 자유화 진전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보험산업은 노하우 구축,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임.

(Swiss Re, 12/19)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자배책보험 내년 4월부터 보험료 인하 계획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배책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4월부터 10% 이상 인하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자배책보험의 보험료는 200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였던 정부의 교부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임. 정부 교부금은 2008년도에 폐지되어 보험료의 전액이 계약자 부담이 됨.
- 그러나 이번 2008년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되어 계약자의 부담이 반대로 경감될 전망이다.
- 일본의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성과가 예상보다 개선되었고,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손해율이 당초 예상보다 20%p 정도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현재 자배책보험의 보험료는 자가용 승용차 2년 계약의 경우가 3만 830엔, 대도시 택시(1년 계약)의 경우가 11만 7110엔, 영업용 2톤트럭(2년 계약)이 13만 5060엔 임.
- 이번 보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현행 보험료의 1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료 개정 절차는 내년 1월 10일과 18일에 개최되는 자배책보험심의회(금융청장관 자문기관)에서 심의되며, 자배책보험심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 금융청에 요율개정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결정됨.
- 일본의 2006년도 자배책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약 3867만건이고 이번 보험료 인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관련 업계에게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FujiSankei Business I, 12/30)

□ 메이지야스다생명, 업계 처음으로 보험약관 전면 개정 단행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약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문자크기의 확대와 도표, 그림 등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보험약관을 개정하지는 않았음.
- 동 회사는 2007년 6월 판매한 여성건강보험의 보험약관을 제일 먼저 개정하였음.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은 보험약관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종전의 법령 양식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 등을 평이한 말로 변경하고, 문자의 크기를 약 10% 확대하는 등의 변경을 추진한바 있고 그 이후 개인연금(7월), 방카슈랑스 전용 일시납 종신보험(10월)의 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하였음.
-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법률, 의무사항 등의 전문용어에 대하여 ‘책임개시’ → ‘보장의 시작’, ‘지급 사유’ → ‘급부금을 지급할 경우’ 등으로 변경했음.
- 또한, 종전의 보험약관 작성기준은 핵심요소와 보충, 예외, 제한 등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보충적인 부분을 ‘비고’로 분리하고, 충실하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은 중심적 내용으로만 구성하여 간소화했음.
- 보험약관 중 ‘특별 표시’, ‘소정의 서류’ 등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부연설명을 명시하였음.
- 동 회사는 이 외에 모든 상품의 약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

(보험매일신문, 12/25)

□ 매뉴라이프 방카슈랑스 전용 투자형 연금보험 판매 예정

- 일본에서 영업 중인 매뉴라이프생명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이 반영되는 투자형 연금보험 신상품을 개발하고, 2008년 1월부터 도와(東和)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임.
- 새로이 개발된 투자형 연금보험은 초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음.
- 이 상품은 자산운용의 목표치를 직접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치에 따라 특별계정에 의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
-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운용성과가 반영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선진형 연금보험임.

- 투자형 연금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제적으로 분산 투자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며, 계약시 목표값(기본보험금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투자비율75(주식75%)’, ‘투자비율50(주식50%)’등의 특별계정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음.
- * 기본보험금액은 사망 급부금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시납 보험료는 기본보험금액과 동액이 됨.
- 둘째, 적립금액이 목표값에 도달할 경우, 적립금액이 목표값에 도달했다는 안내문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목표에 도달한 날 책임준비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되므로 계약자가 고민하지 않고 운용실적을 확보할 수 있음.
- 셋째, 만약 자산운용 상태가 나빠서 목표값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100%가 최저 보증됨. 다만, ‘투자비율75’를 선택해 운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기본보험금액의 90%가 최저 보증됨.

(교도통신, 12/28)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재보험그룹 전략적 파트너 물색 중

- 중국 보감위 부주석 리커무(李克穆)는 최근 '2007년 중국금융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10월 30일, 중국 재보험그룹은 주식시장 상장 준비로 한창 바쁠 때 이미 외국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맞이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힘.
 - 그는 또 "중국재보험그룹은 11월 초부터 관계기관과 접촉하며 외국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하에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기도 함.
- 리커무 부주석은, 최근 중국 보험업 감독업무는 주로 지불능력, 시장행위, 보험회사의 조직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현금유동성이 과도하다는 점 때문에 향후 유동성 부분에 감독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함.
- 보감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보다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음.
 - 일부 보험회사는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자산운용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보험업계가 구조적으로 수입보험료 만으로는 이익실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
- 한편, 보감위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투자형 보험상품이 펀드사가 판매하는 펀드상품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 스스로 자신의 장점인 보장성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임.

(중국증권망, 12/26)

□ 중국, 수출신용보험 장려로 대외무역 촉진

- 지난 12월 19일,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제 2차 국가위험관리 세미나’에서 중국 보감위 주석 우땡푸(吳定富)는 "앞으로 중국 수출신용보험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을 통해 빠르고 실속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함.
- 지난 6년 여 동안 중국수출신용보험이 신흥시장 수출보험 형식으로 승낙한 보험금액은 총 439억 달러로 전체 승낙액의 4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이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2007년 10월 기간 중, 중국수출신용보험은 아프리카 지역 71억 달러, 러시아 지역 13억 달러 등의 수출신용보험을 제공하였음.
 - 거래형태는 일반무역 거래를 비롯, 플랜트 프로젝트, 직간접 투자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품별로는 자동차, 가전제품, 각종전기제품 등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우땡푸는 중국정부는, 수출신용보험 시장에 기회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용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출신용보험 발전이 중국의 대외무역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상해증권보, 12/20)

□ 2007년 중국농업보험 수입보험료 전년대비 5배 성장

- 2007년 한 해 중국 보험시장은 여전히 신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인들의 보험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임.
- 그러나 신농촌건설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농촌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 통계에 따르면 2007년 3/4분기 현재 중국 농업보험 수입보험료는 43억 위안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이 수입보험료 총액의 5배에 이르고 있음.
 - 농업보험 영역도 임업, 유채, 담배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촌의료보험과 양로보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시범 실시하고 토지를 징집당한 농민에 대한 연금보험 시행 등의 정책성 보험제도가 시행되기도 함.
- 2007년 상반기 기준 121개 현급 이상 농촌에서 총 2,760만 명이 신형농촌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의료기금만도 16.7억 위안에 이르고 있으며, 기 지급된 보상액은 7.5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15개 지역에서 토지를 징집당한 농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30억 위안에 이룸으로써 농민생활의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함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생명, 손해보험 모두 농촌지역 깊숙히 파고드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

(신량재정, 12/21)

【 Financial Key Indicators 】

| 구분 | | 06년말 | 07.12.14(금) | 07.12.21(금) | 07.12.28(금) | 전주대비 |
|--------|-------------|-----------|-------------|-------------|-------------|---------|
| 금리 (%) | 韓 국고채(3년) | 4.92 | 5.89 | 5.81 | 5.74 | -0.07 |
| | 美 10년국채 | 4.71 | 4.24 | 4.17 | 4.08 | -0.09 |
| | 英 10년국채 | 4.73 | 4.79 | 4.64 | 4.56 | -0.08 |
| | 日 10년국채 | 1.68 | 1.56 | 1.56 | 1.51 | -0.05 |
| 주가 | 韓 KOSPI | 1,434.46 | 1,895.05 | 1,878.32 | 1,897.13 | +1.00% |
| | 韓 KOSDAQ | 606.15 | 725.53 | 697.46 | 704.23 | +0.97% |
| | 美 DJIA | 12,463.15 | 13,339.85 | 13,450.65 | 13,365.87 | -0.63% |
| | 美 Nasdaq | 2,415.29 | 2,635.74 | 2,691.99 | 2,674.46 | -0.65% |
| | 英 FTSE | 6,240.90 | 6,397.00 | 6,434.10 | 6,476.90 | +0.67% |
| | 獨 DAX | 6,596.92 | 7,948.36 | 8,002.67 | 8,067.32 | +0.81% |
| | 佛 CAC40 | 5,541.76 | 5,605.36 | 5,602.77 | 5,627.25 | +0.44% |
| | 日 Nikkei225 | 17,225.83 | 15,514.51 | 15,257.00 | 15,307.78 | +0.33% |
| | 中 상해종합 | 2,675.47 | 5,007.91 | 5,101.78 | 5,261.56 | +3.13% |
| | 대만 가권 | 7,823.72 | 8,118.08 | 7,941.44 | 8,396.95 | +5.74% |
| 홍콩항셍 | 19,964.72 | 27,563.64 | 27,626.92 | 27,370.60 | -0.93% | |
| 환율 | 원/달러 | 929.60 | 924.50 | 941.20 | 938.90 | -2.30 |
| | 원/100엔 | 781.83 | 823.09 | 831.49 | 825.04 | -6.45 |
| | 엔/달러 | 118.90 | 112.32 | 113.20 | 113.80 | +0.60 |
| | 달러/유로 | 1.3148 | 1.4629 | 1.4323 | 1.4613 | +0.0290 |
| | 위안/달러 | 7.8135 | 7.3675 | 7.3690 | 7.3179 | -0.0511 |